

국내산업 뒷받침하는 매체되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유대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하는 기술표준지의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창간축사를 할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주시는 기술표준원 윤보원 원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혁명의 과정으로 나타난 근대 저널리즘은 새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시작되어, 현대사회에선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감시자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발전과 급속한 사회 변화는 역할에 분으로 이어져 오늘날엔 방송과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표준을 비롯해 여러 산업분야의 내용은 전문신문과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매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술표준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기술표준지는 우리나라 표준체정을 통한 산업과 기술의 핵심기반을 발전시켜, 국내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전문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짧은 시간동안 기술표준지는 기술표준원의 핵심업무인 한국산업표준(KS)이 국제표준에 자진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왔고, 승강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공정한 상거래의 보장을 위한 계약서 검증, 국가의 정밀측정, 시험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기술표준지는 또한 매월 제정된 KS규격의 목록과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시작으로 기술표준원의 국제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관련기관·단체 등에 알려, 외국의 기술수준을 적시에 파악케 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수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표준지의 성과이자 업적입니다.

앞으로 국내 기술표준을 대표하는 기술표준지가 국내외 새로운 정보 및 KS 업무처리 실적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신·학·연에 유익한 자료가 되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이 기대하는 기술표준원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모여온 기술표준의 정인지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국내 제일의 '기술표준 전문매체'로 우뚝 설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술표준지의 성장·발전은 독자인 분원에게도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창간 3주년을 기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